

주거침입 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이유나*·정대관**

〈요 약〉

이 연구의 목적은 주거침입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는데 있다. 이에 주거침입 피해 실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인구나사회학적 특성 및 일상적 생활양식과 주거침입 피해경험 간의 관계 및 영향력을 살펴본다. 또한 일상활동·생활양식이론에 기초하여 근접성과 노출, 보호능력 요인으로 주거침입 피해를 설명한다.

연구대상은 전국의 4,710가구로, 제8차 전국범죄피해조사(KCVS)자료를 이차데이터로서 활용하였고,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위계적 로지스틱 회귀분석방법을 이용하였다.

연구결과 근접성 및 보호능력 차원에서 피해를 설명할 수 있었으며 이는 범죄와의 근접성이 높을수록, 물리적 보호능력 수준이 높을수록 주거침입 피해 가능성은 감소한다고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이차데이터의 특성상 측정변수를 근사변인으로 설명함으로써 이론적 모형을 명확하게 반영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갖는다. 향후 연구에서는 주거침입 피해유발 요인 명확하게 측정하여 보다 실질적인 침입피해 예방정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주제어 : 주거침입 피해, 노출, 근접성, 보호능력, 일상활동이론

* 동국대학교 박사과정 (주저자)

** 목원대학교 경찰법학과 교수 (교신저자)

목 차

- | |
|--|
| I. 서 론
II. 이론적 배경
III. 연구설계 및 분석방법
IV. 분석결과
V. 결 론 |
|--|

I. 서 론

주거침입이란 사람이 주거·관리하는 건조물·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거나, 이러한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범죄로(형법 319~321조) 일반적으로 강·절도, 성폭행, 손괴 등을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2008년 가구범죄 피해발생율을 살펴보면 주거침입 강·절도 및 손괴 등 침입피해 경험이 있는 가구는 213가구로 전체(4, 710가구)의 4.7%를 차지하고 있고, 총 피해건수를 기준으로 보면, 약 7.7%로 추정된다. 이러한 가구대상범죄는 대부분 절도를 목적으로 이루어지며 전국 가구 중에서 주거침입절도 피해경험이 있는 비율은 4.5%로 추정된다(김은경·최수형·박정선, 2009). 이는 최근 맞벌이 부부 및 1인가구의 증가 등으로 집에 사람이 없는 시간이 늘고, 이를 이용해 접근성이 좋은 대규모 원룸단지 와 다세대주택 등을 중심으로 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주거침입 범죄는 절도로, 범죄유형 중 일반인들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김대권, 2010: 15). 그 중 주거침입 절도는 신체적 접촉이 없는 재산범죄임에도 물질적 피해와 함께 정신적인 피해, 그리고 후유증이 매우 큰 범죄유형이다. 또한 이외에도 혼자 사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강간 및 성추행 범죄를 위해서도 많이 이루어진다. 2012년 발생한 성폭력 범죄 중(21, 346건) 주거지에서 발생한 범죄(3, 887건)가 가장 높은 비율(18.2%)을 차지하는데¹⁾, 이는 야간시간대에

동거인이 없는 1인 가구에서 많이 발생한다. 이 외에도 주거침입은 단순한 분노표출의 수단으로 폭력이나 손괴, 난동의 형태로 이루어지기도 한다.

주거침입범죄로 인한 피해는 그 목적을 불문하고 심리적 후유증이 많이 남고 두려움 또한 높아 사전에 효과적으로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반적인 예방법으로 건물 외부 가스관 등에 쇠 철망을 씌우는 등 물리적 예방을 하거나, 두려움으로 인해 CCTV, 도난경보시스템 설치 등 민간경비를 활용하여 하기도 한다(김상운·신재현, 2012) 그러나 2013년 검찰청 통계를 따르면, 주거침입절도범·강도범의 침입경로는 일반 출입문 11, 613건(49.0%)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창문 4, 006건(16.9%), 담 679건(2.9%) 순으로 나타났다. 놀라운 사실은 침입절도범의 침입방법으로 다른 특별한 기술을 요하기보다 문단속을 하지 않거나 시정장치가 되어있지 않은 집의 문을 열고 들어온 경우가 6, 033건(25.4%)이나 된다는 것이다(대검찰청, 2013: 20). 이는 침입범죄 예방을 위해 평소에 출입문 및 창문 등을 철저히 하는 생활습관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지금처럼 보안·경비장치가 발전되지 않은 시대부터 예방을 위해 개를 키우는 생활양식이 있었다. 이는 지금까지 전해오는 통념으로 실제로 최근 광주 원림촌에서는 보안장치를 설치해도 줌도독이 기승을 부리자 가구마다 경비견을 키우는 분위기가 확산되기도 하였다²⁾.

이처럼 주거침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바, 최근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범죄의 기회에 초점을 두어 범죄의 수익성이 높을수록, 그리고 감시성이 낮을수록 침입절도범죄에 영향을 미치며(이윤호·김대권, 2010: 23), 거주자의 부재 및 물리적 보안장치가 미비할수록 범죄피해가 높다고 본다(이주락·강민완, 2009: 220). 같은 맥락에서 이 연구는 주거침입 피해경험을 생활양식/일상활동이론(lifestyle/routine activity theory)을 근거로 두어 근접성(proximity) 및 노출(exposure), 그리고 사회적·물리적 보호능력(guardianship)¹⁾이라는 변인으로서 설명하고자 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우리나라 가구에 대한 주거침입 피해 실태가 어느 정도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이다. 둘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거침입범죄와 관련하여 갖고 있는 일반적인 통념, 즉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일상적 생활양식과 주거침입 피해경험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피해경험에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해본다. 셋째, 일상활동/생활양식이론을 주거침입 피해상황에 적용해 근

1) 대검찰청, 2013.

2) 뉴시스, 2007.3.07. “줌도독 기승, 집마다 개 키워”, 이형주기자.

접성과 노출, 보호능력 중 어떤 요인이 더 주거침입 피해 가능성을 증가시키는지 실증적으로 살펴보는 것이다.

연구목적 달성을 위하여 전국 가구주를 대상으로 하는 제8차 전국범죄피해조사(KCVS)를 활용하여 위계적 로지스틱 회귀분석방법으로 검증하였다. 이는 어떤 변수가 상대적으로 주거침입 피해발생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지 검토하기 위함이며, 향후 이 연구를 바탕으로 주거침입 피해유발 요인분석이 계속 이루어져 보다 실질적인 침입피해 예방정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이하 생활양식/일상활동이론 및 관련 선행연구에 대해 먼저 검토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생활양식적 접근(lifestyle approach)

Hindelang은 일정한 사회적 특성을 갖는 집단이 다른 사회적 특성을 가진 집단보다 범죄피해와 높은 개연성이 있다고 가정하고, 피해위험은 각각의 사회적 특성을 반영한 서로 다른 생활양식(lifestyle)에서 기인한다고 주장했다(Hindelang, Gottfredson & Garofalo, 1978; Kuo, 2009: 462).

생활양식이란 개인의 특성과 관련된 역할기대(role)에 의해서 부분적으로 가능하고 강제되는 것으로 개인이 성취한 신분과 지위에서 기인된 문화적 표준이며, 예측되는 행동이다. 이는 직장과 학교 등 직업적 활동과 여가활동 모두를 포함한 일상적인 활동을 의미하고, 서로 다른 역할기대는 개인의 인구학적 특성으로부터 나오며, 다른 생활양식, 위험으로의 노출, 피해자화의 기회로 이어진다(Hindelang et al, 1978; Stein, 2010: 37).

즉, 계층·인종·성별·연령 등 인구사회학적 차이는 개인별로 상이한 직업활동, 여가활동 등의 일상적인 활동의 양식(생활양식)을 갖게 하고, 이러한 생활양식에 따라 개인의 범죄위험성에 대한 노출정도를 결정하므로, 범죄피해를 당할 가능성도 달라진다는 것이다(지광준, 2005: 91). 예를 들면 남성이 여성보다 위험한 기회에 많이 노출되는데, 이는 비교적 여성이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나 개인적인 장소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기 때문이라고 한다(Walklate, 1989; 김지연, 2008: 31). 정리하면 생활양

식이론은 개인의 상이한 특성이 생활양식의 차이를 만들어내고 이러한 생활양식의 차이가 상이한 범죄피해의 기회를 만든다는 것이다.

2. 일상활동이론 (routine activity theory)

유사하게 일상활동이론은 범죄피해현상을 설명함에 있어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이론으로, ‘동기화된 범법자(motivated offender), 범행에 적합한 대상물(a suitable target), 사람이나 재산에 대한 감시가능성의 부재(the absence of guardians)’라는 세 가지 요소가 한 시간과 공간에 모아졌을 때 범죄피해가능성이 증가한다는 것이다(Cohen & Felson, 1979:589). 즉 잠재적 피해자가 ‘높은 가시성(visibility) 및 접근성(accessibility), 그리고 매력성(attractiveness) 등’ 높은 표적 적합성(target suitability)을 갖고 있으나 보호능력(guardianship)이 낮은 경우에 범죄피해의 위험성이 가장 높다고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이다(이윤희, 2007: 45).

이에 세 가지 조건 중 한 가지라도 예방한다면 범죄의 실행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Cohen & Felson, 1979: 589). 예를 들면, 사전주의조치의 강화는 잠재적 범죄자의 잠재적 범죄표적에의 근접성을 줄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범죄율을 낮출 수 있고, 반대로 여가활동의 증가, 가정생활의 축소, 독신생활자 증대 등 매력적인 표적은 증가하는 반면 보호능력의 수준이 낮아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범죄기회가 증대된다는 것이다.

근접성(proximity to crime)은 범죄와의 물리적 근접성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범죄발생장소 또는 위치와 가까이 있을수록 또는 범죄다발지역에 가까울수록 범죄피해의 위험성이 높아지기 마련이라는 것이다(이윤희, 2007: 31). 범죄다발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일수록 범죄피해자가 될 위험성이 더 높은 이유는 범죄자와의 접촉빈도를 증대시킬 가능성이 그만큼 높기 때문이라고 한다. 사람들이 많은 시간을 집 주변에서 보내고, 범법자들이 자신의 거주지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표적을 선택한다는 사실이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이윤희, 2007: 31).

적절한 대상(target suitability)은 범죄에 대한 그 사람의 가시성(visibility)과 접근성(accessibility) 그리고 매력성(attractiveness)으로 나타낼 수 있다. 가시성은 건물이나 주거공간이 홀로 떨어져 있거나, 출입구가 다수이거나, 후미진 구석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 등 더 많이 ‘노출된 것으로 볼 수 있다(이윤희, 2007). 이는 개인의 주요한

일상활동이나 여가활동 등을 위해 야간에 외출하는 빈도나 집을 비우는 평균시간 등을 지표나 척도로 이용하고 있다. 접근성은 잠재적 범죄대상의 접근가능성이며, 매력성은 고가이거나 이동이 용이한 재화의 소지여부, 공공장소에서의 보석패용 여부, 사회경제적 지위나 가족의 소득 등을 활용하여 측정하고 있다.

보호능력(capable guardianship)은 범죄피해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이나 물품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보호나 방어의 능력이다. 이는 대인적, 사회적, 물리적인 측면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사회적 보호능력은 가족구성원, 이웃주민과의 친분 또는 협조의 정도 등을 예로 들 수 있고, 물리적 차원에서의 보호능력은 주로 표적의 견고화와 같이 방법시설이나 장치를 통한 확보 등이 있다(이윤호, 2007). 이러한 보호능력의 강화는 곧 범죄자에 대한 범행의 기회비용을 증대시키게 되어 결국에는 범행과 피해의 기회를 축소시키게 된다.

생활양식과 일상활동이론은 다소 중복되고 유사한 면이 있는데, 생활양식 이론은 범죄피해를 미시적인 수준에서 한 개인의 생활방식 차이에 초점을 두어 설명하고, 일상활동 이론은 거시적인 수준에서 왜 특정한 일상 활동의 패턴이 범죄피해에 영향을 주며, 그것이 어떻게 잠재적 범죄자와 대상, 보호능력과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준다는 차이가 있다(Felson, 1986; 조운오, 2013: 5). 생활양식 이론의 핵심은 피해자 개인이 갖고 있는 독특한 인구사회학적 특징(성별, 경제수준 등)과 개인이 일상에서 보여주는 잠재적 범죄자와의 접촉 가능성, 노출 및 근접성이고, 일상활동 이론은 잠재적 가해자와 적절한 피해자, 그리고 보호능력 부재라는 환경적 요인이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진다(조운오, 2013: 5). 국내 연구들의 경우, 두 이론을 하나로 보아 일상활동/생활양식이론으로 정의하기도 한다.

3. 선행연구

생활양식적 관점에서 일반적으로 여성은 남성보다 강도를 당할 위험성이 높고, 기혼자와 부유한 사람은 미혼이거나 부유하지 않은 사람보다 절도피해를 당할 확률이 높다고 본다. 또한 일상적으로 야간에 밖에서 활동하는 사람이 집에 있는 사람보다 피해를 더 많이 당한다고 본다(Kuo, Cuvelier & Chang, 2009: 464). 또한 미국 도시 중심부에 거주할수록, 어릴수록, 평균 수입이 높거나 낮은 사람일수록, 유색인종일수록 주거침입절도범죄피해를 당할 확률이 높아진다고 제시한다. 반면에 나이가 많고,

교외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절도피해를 당할 확률이 낮다고 주장한다(Cohen & Cantor, 1981: 126). 이는 인종에서부터 수입의 범위까지 기존의 주거침입 절도에 관한 연구들에서 발견되었던 Hindelang의 이론에 대부분 부합하는 결과이다. 같은 맥락에서 교육과 여성들의 사회참여 등 사회적 트렌드의 변화가 범죄피해를 높인다는 주장도 있다(Miethe, Stafford & Scott, 1987: 194).

또한 생활양식의 변화(오후, 저녁시간의 집밖에서의 활동증가)는 목표물의 가시성을 높이고, 범죄자에게의 노출을 크게 만들며, 보호능력의 감소(가족 구성원의 수 감소)도 범죄피해와 관계가 있다고 한다(Miethe, Stafford & Sloane 1990: 357). 대학생의 일상활동을 분석한 절도피해연구에서는 집밖의 활동 빈도보다 본인의 일탈적 행동성향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또한 범죄가 많이 발생하거나 소음이 심하다고 느끼는 지역에서 소매치기 피해가 높게 나타났다고 주장한다(Mustain & Tewksbury, 1998: 829-844).

일반적으로 범죄와의근접성은 지역의 범죄율, 무질서정도, 도시와 농촌 등 거주지역, 소득수준이나 실업률 등 사회경제적 특성, 거주지역의 안전의식 등이 이용되고 있다(지광준, 2005: 84).

범죄에 대한 노출은 개인 범죄에 대한 취약성(vulnerability)으로 주로 개인의 일상 활동이나 여가활동 등을 위해 야간에 외출하는 빈도나 집을 비우는 평균시간 등을 이용하고 있다(Mustain & Tewksbury; 지광준, 2005: 85). 이는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높은 시간(야간)에 위험성이 높은 장소에 많이 놓이게 되는 사람일수록 그만큼 범죄에 많이 노출되며, 범죄피해의 위험성이나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지게 된다는 것이다.

목표물은 매력성은 고가이거나 이동이 용이한 재화의 소지여부, 공공장소에서의 보석패용 여부, 사회경제적 지위나 가족의 소득 등을 활용하여 측정하고 있으며, 많은 연구에서 지지되고 있다(강은영, 1992; 박철현, 2003; 이운호·김대권, 2010).

마지막으로 보호능력은 사회적 보호능력은 가족구성원, 이웃주민과의 친분 또는 협조의 정도, 물리적 차원에서의 보호능력은 방법시설이나 장치(지광준, 2005) 및 주거지 내 개의 유무(Mustain & Tewksbury, 1998) 등이 활용되며 실제로 이는 피해예방에 가장 긍정적인 요인으로서 많은 연구결과 지지되고 있다.

선행연구 검토결과 주거침입범죄 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파악 및 방향성을 어느 정도 살펴볼 수 있었으나 일치된 결과가 나오지는 못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 상황에서 일상활동, 생활양식적 접근으로 주거침입범죄를 설명하는 것은 중요한 의

의가 있다고 판단된다.

Ⅲ. 연구설계 및 분석방법

1. 연구대상 및 표본설정

이 연구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2009년에 수집한 제8차 전국범죄피해조사(KCVS)자료를 이용하였다. 전국범죄피해조사는 3년 주기로 실시되고 있으며, 제9차 조사도 실시되었지만 제8차 자료만 2013년에 공개되어 이를 이용하였다.

2009년 전국범죄피해조사는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일반조사구 중 보통조사구와 아파트조사구의 모든 가구 및 14세 이상 가구원을 모집단으로 하였다. 표본선정은 전국의 표본구모를 450개 조사구를 결정한 후 16개 시도 및 동부, 읍면부를 고려한 25개 층별로 조사모집단 분포의 가구 수에 비례배분을 고려하였고, 조사구당 10가구를 조사하여 총 4,710가구에 총 10,671명이 응답하였다.

본래 자료는 가구범죄와 개인범죄를 구분하여 가구범죄는 가구원을 제외한 가구주에게서만 조사하여, 이 연구에서는 연구목적인 주거침입범죄 관련 피해를 살펴보기 위해서 연구대상을 가구원의 조사를 제외한 4,710가구로 한정하였다.

2. 측정도구 및 변수설명

본 연구는 SPSS 통계 패키지 프로그램 19.0을 활용해 생활양식/일상활동이론 관련 변수들이 주거침입범죄 피해발생에 미치는 영향력을 실증적으로 검토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에 여러 선행연구를 검토 한 후 본 연구의 분석모델은 주거침입범죄 피해유발 요인을 (1) 잠재적 가해자와 피해가구 사이의 근접성, (2) 가구의 노출, (3) 가구의 물리적·사회적 보호능력 여부로 구분한다.

변수 설명에 앞서 이 연구는 2차 자료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독립변수를 근사변인으로서 측정함으로써 이론적 모형에서 주장하고 있는 주거침입 피해경험의 결정요인들이 조작적 정의를 명확하게 반영하는 측정문항들로 제대로 측정되지 못했다는 한계점을 갖는다.

먼저 종속변수는 주거침입 피해 경험 여부를 측정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2008년 주거침입강·절도 및 손괴 등 범죄피해경험이 있는 가구는 총 213가구로 전체의 4.7%를 차지하나, 이 연구에서는 집 밖에서 일어난 재산상의 피해를 제외하고 직접 주거에 침입한 경험을 측정한 문항만을 활용한다. 이에 “당신은 2008년 한해 동안, 누군가가 문이나 창문을 열거나, 자물쇠를 부수거나 칸막이를 절단 하는 등 귀택에 무단으로 들어오거나 들어오려고 시도한 적이 있습니까?”라고 물어 경험이 있으면 ① 있다, 없으면 ② 없다 로 측정하였다.

독립변수는 근접성 및 노출 관련 변수, 그리고 보호능력 관련 변수로 나누었는데, 보다 완벽한 모델 구성을 위해서는 매력성 변수가 포함되어야 더욱 적절한 설명하게 모형을 설명할 수 있다. 일상활동이론에서 근접성이란 범죄발생 장소와의 물리적 거리를 나타낸다. 이 연구에서는 이차자료의 한계 상 유사요인으로 잠재적 가해자와의 근접성을 거주지의 무질서로 판단하였다. 요인분석을 통해 ‘기초질서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냄새나 소음 등으로 쾌적하지 않다, 무리지어 다니는 불량 청소년들이 많다, 큰소리로 다투거나 싸우는 사람들을 자주 볼 수 있다, 주변에 내버려진 물건이나 쓰레기 더미가 널려있다, 후미진 곳이나 공터 등이 많다’라는 변수를 포함하였다.

노출은 잠재적 피해자가 갖고 있는 범죄에 대한 취약성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는 유사개념인 거주지의 노출정도를 측정하였다. 이에 “당신과 가족이 전부 외출하거나 출근하여 집이 비어있는 시간은 하루 단위로 대략 몇 시간 정도나 됩니까?”라는 문항을 사용하였다.

보호능력변수는 사회적보호능력은 유대관계가 있는 이웃의 수로 측정하였다. 이는 범죄가 발생했을 때 관심을 갖고 도움을 줄 사람의 정도로 판단하여 ‘가벼운 목례나 인사, 말, 신체접촉을 하며 안부를 묻는 사람, 30초 이상 이야기를 하는 사람’으로 (1) 전혀 없다, (2) 1~2명 (3) 3~4명 (4) 5~10 (5) 10명 이상 으로 응답한 결과를 변수 계산을 통해 이웃과의 유대정도로 측정하였다.

물리적 보호능력변수는 ‘비디오폰이나 현관문에 밖을 볼 수 있는 구멍이 있는지, CCTV등의 감시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지, 현관에 들어올 때 출입카드를 사용하고 있는지, 경비가 있는지, 도난 경보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가 포함되었고 마찬가지로 변수계산을 통해 물리적 보호능력정도로 보았다.

통제변수는 인구사회학적 특성인 월평균 가구소득, 세대구성(동거인 유무)과, 개

인의 생활양식인 응답자의 문단속 습관, 개의 유무 총 네 가지가 포함되었다. 이는 범죄에 있어서 특정한 표적이 범죄자에게 상징적·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평가되고 인식이 되기 때문에 범행의 대상으로 선택된다는 논리에 기초하였다. 범죄표적으로서의 매력은 목표물의 가치나 물리적 저항의 정도가 좌우한다고 보고 가치는 크고 그 크기와 저항은 작은 것이 매력적인 표적이라고 보았다. 즉 일반적으로 주거침입 범죄에 갖고 있는 통념을 확인하는 것으로 사회경제적 지위인 월평균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문단속을 잘 하지 않을수록, 동거인이 없거나 개를 기르고 있지 않을수록 주거침입피해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예상한 것이다.

3.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각 변수들의 기본 특징을 빈도분석으로 먼저 간략히 살펴보고, 교차분석을 통해 각 변수들 간 주거침입 피해경험의 차이를 살펴본다. 그 후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종속변수인 주거침입 피해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본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는 특히, 주거침입 피해발생과 관련하여 근접성, 노출의 효과와 보호능력의 효과가 각각 얼마나 상이하게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지 검토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 형식으로 단계별 변수 영향력을 구분하여 살펴볼 것이다.

이하 분석 결과에서는 전체 full model이 보이는 모델 설명력과 기본 인구사회학적 요인(또는 노출 및 근접성 포함 모델) 모델이 보이는 설명력을 비교하여 우리나라 주거침입 피해 발생을 유발하는 핵심 요인이 무엇인지 실증적으로 살펴보는데 주력할 것이다.

IV. 분석결과

1. 인구사회학적 특징

연구 대상자 4, 710가구의 특징을 살펴본 결과는 <표 1>과 같다. 전체 가구 중 주거침입절도 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한다는 1인 가구는 957(20%), 1인 이상(부부, 자녀, 한부모 가정, 3세대 가정, 형제·자매 구성가정, 조부모가정, 비혈연가정)이 합

계 동거하는 가구가 3, 718(79%)로 나타났다. 즉 응답자의 80% 이상 대부분의 가구가 응답자 외에 동거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연구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생활양식

내용	구분	N(%)	
세대구성	1인 가구	947(20)	-
	1인 이상가구 (부부, 자녀, 한부모, 3세대, 형제·자매, 조부모, 비혈연)	3, 718(79)	
	기타	45(1)	
	합계	4, 710(100)	
월평균 가구소득	소득없음	123(2.6)	Mean: 2.68 SD: 1.37
	100만원 미만	1, 055(22.4)	
	100~200만원	974(20.7)	
	200~300만원	1, 099(23.3)	
	300~500만원	1038(22.0)	
	500~1000만원	372(7.9)	
	1000만원 이상	49(1)	
	합계	4, 710(100)	
문단속 정도	전혀 그렇지않다	296(6.3)	Mean: 2.75 SD: 1.13
	그렇지 않은편이다	350(7.4)	
	보통이다	915(19.4)	
	그런편이다	1, 836(39.0)	
	매우그렇다	1, 313(27.9)	
	합계	4, 710(100)	
개의 유무	없다	4, 041(85.8)	-
	있다	669(14.2)	
	합계	4, 710(100)	

두 번째 인구학적특성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을 살펴본 결과 가구 전체 수입이 없는 가구는 123가구로 2.6%였고, 100만원 미만은 1, 055(22.4%), 100~200만원은 974(20.7%), 200~300만원은 1, 099(23.3%), 300~500만원은 1, 038(22.0%)으로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다. 500~100 만원은 372가구(7.9%), 1000만원 이상의 수입이 있는 가구

는 49(1%)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많은 주거침입 절도사건이 열린 현관문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을 감안할 때 평소 개인의 생활양식특성으로 “항상 문단속을 철저히 하는가?”라는 문항을 살펴본 결과, 전혀 그렇지 않다 296(6.3%)가구, 그렇지 않은편이다 350(7.4%)가구, 보통이다 915(19.4%)가구, 그런편이다 1, 836(39.0)가구, 매우그렇다는 1, 313(27.9)라고 응답하였다.

마지막으로 응답자들이 집에 개를 기르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없다’ 라고 응답한 가구는 4, 041(85.8%), 있다는 669(14.2%)로 대부분의 가구에서 개를 기르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주거침입 피해실태 및 피해 유발요인 특징

1) 주거침입 피해실태

주거침입 절도를 포함하여 누군가가 문이나 창문을 열거나, 자물쇠를 부수거나 칸막이를 절단 하는 등 귀택에 무단으로 들어오거나 들어오려고 시도한 적이 있는가 질문에 피해경험이 한번도 없다는 응답자는 4, 655(98.8)가구, 피해경험이 1회이상 있는 가구는 55로 전체의 1.2%를 차지하고 있다. 주거침입 피해경험 가구를 대상으로 피해횟수를 살펴본 결과 대부분(81.8%) 1회의 피해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2회는 12.7%, 3회는 5.5%로 나타났다.

〈표 2〉 주거침입 피해경험

내용	구분	N(%)
주거침입 피해경험	없음	4, 655(98.8)
	있음	55(1.2)
	합계	4, 710(100)
주거침입 피해횟수	1회	45(81.8)
	2회	7(12.7)
	3회	3(5.5)
	합계	55(100)

2) 주거침입 피해 유발요인 특징

이 연구에서는 생활양식/일상활동 이론적 변수를 기초로 주거침입 피해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찾는데 목적이 있다. 이에 독립변수는 크게 ‘근접성, 노출, 보호 능력’으로 나누고 있으며 그 기본 내용을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먼저 근접성 변수는 6개의 하위변수를 변수계산을 통해 거주지의 무질서정도로 나타냈으며 무질서정도를 ‘상, 중, 하, 전혀 그렇지 않다’ 나눈 결과는 다음과 같다.

노출변수는 평균적으로 집을 비우는 시간으로 거의 집을 비우지 않는 경우가 920(19.5%), 2시간 미만 노출되는 경우는 523(11.1%), 2시간에서 4시간 미만은 839(17.8%), 4시간~8시간 미만은 1, 173(24.9%), 12시간 이상은 290(6.2%)로 4시간에서 8시간정도 비우는 가구가 24.9%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8시간에서 12시간, 거의 비우지 않음 순으로 나타났다.

〈표 3〉 주거침입 피해 유발요인 특징

내용	구분	N(%)
근접성 (거주지 무질서)	상	1, 059(22.5)
	중	2, 358(50.1)
	하	1, 130(24.0)
	전혀 그렇지 않다	164(3.5)
	합계	4, 710(100)
노출 (집비우는 평균시간)	거의비우지 않음	920(19.5)
	2시간 미만	523(11.1)
	2-4시간	839(17.8)
	4-8시간	1, 173(24.9)
	8-12시간	965(20.5)
	12시간 이상	290(6.2)
	합계	4, 710(100)
사회적 보호능력 (친밀한 이웃 수)	상	1, 313(27.9)
	중	1, 174(24.9)
	하	2, 047(43.3)
	전혀 없다	186(3.9)
	합계	4, 710(100)

내용	구분	N(%)
물리적 보호장치	없다	2, 003(42.5)
	1개	771(16.4)
	2개	556(11.8)
	3개	862(18.3)
	4개	338(7.2)
	5개	180(3.8)
	합계	4, 710(100)

사회적 보호능력변수는 친한 이웃의 정도로 4가지 하위요인을 변수계산을 통해 최소값 0, 최대값 16을 갖는 변수로 나누었고, 이를 상중하로 분류하였다. 상은 1, 313가구(27.9%) 중은 1, 174가구(24.9%), 하는 2, 223가구(47.2%)로 나누었다.

물리적 보호능력 변수는 가구에 물리적 보호장치(비디오폰이나 현관의 구멍, CCTV등 감시카메라, 출입카드, 경비여부, 도난경보시스템 여부)를 얼마나 구비하였는지 변수계산을 통해 그 정도를 측정하였고, 전혀 없는 경우가 42.5%인 2, 003가구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3개 862가구(18.3%), 1개 771가구(16.4%), 2개 556가구(11.8%), 4개 338가구(7.2%), 5개 180가구(3.8%)순으로 나타났다. 보안, 경비시설의 성장으로 대부분의 가구에서 물리적 보호능력을 갖추고 있을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거의 절반에 가까운 42.5%가구는 보호시설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3.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주거침입 피해경험

다음으로 변수들과 주거침입 피해 간에 유의적인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카이 제곱분석을 실시하였으나 유의미한 결과가 제시되지 않았다. 그러나 인구학적 특성 및 가구의 생활양식에 따른 피해경험의 차이를 보다 쉽게 살펴보는 데 의의를 두어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표 4>에서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먼저 세대구성의 경우 총 55건의 피해가구 중 1인 가구 즉 동거인이 없는 가구에서는 13가구(23.6%), 1인 이상 가구 즉 동거인이 있는 경우는 42가구(76.4%)에서 발생하였다. 다음으로 월 평균 가구소득별 피해를 살펴보면 소득이 없는 경우는 2가구로 전체 피해가구 중 3.6%를 나타냈고, 100만원 미만의 수입을 갖는 경우는 13가구(23.6%), 100~200만원과 200~300만원의 경우 각각 13가구(23.6%), 월

소득 300~500은 비교적 가장 많은 14가구(25.5%), 500~1000만원은 3가구(5.5%), 1,000만원 이상가구에서는 피해경험이 없었다.

〈표 4〉 인구학적 특성과 피해경험(교차분석)

구 분		주거침입 피해경험 (%)	
		없다	있다
세대구성	1인 가구	934(20.1)	13(23.6)
	1인 이상가구	3, 721(79.9)	42(76.4)
	합계	4, 655(100)	55(100)
월평균 가구소득	소득없음	121(2.6)	2(3.6)
	100만원 미만	1, 042(22.4)	13(23.6)
	100~200만원	961(20.6)	13(23.6)
	200~300만원	1, 089(23.4)	10(18.2)
	300~500만원	1, 024(22.0)	14(25.5)
	500~1000만원	369(7.9)	3(5.5)
	1000만원 이상	49(1.1)	0(0.0)
	합계	4, 655(100)	55(100)
	문단속 정도	전혀 그렇지않다	293(6.3)
그렇지 않은편이다		347(7.5)	3(5.5)
보통이다		908(19.5)	7(12.7)
그런편이다		1, 815(39.0)	21(38.2)
매우그렇다		1, 292(27.8)	21(38.2)
합계		4, 655(100)	55(100)
개의 유무	없다	3, 995(85.5)	46(83.6)
	있다	660(14.2)	9(16.4)
	합계	4, 655(100)	55(100)

평소에 가구에서 문단속을 하는 정도와 주거침입 피해경험을 보면, 전혀 문단속을 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가구 중 피해를 경험한 가구는 3가구로 총 피해가구 중 5.5%를 차지하고 있다. 이외에 그렇지 않은편이다 중 3가구(5.5%), 보통이다 중 7가구(12.7%), 그런편이다 21가구(38.2%), 매우그렇다 21가구(38.2%)로 대부분의 경우 문단속을 잘하고 있다고 응답을 한 가구에서도 주거침입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마지막 생활특성인 가구에서 개를 기르고 있는지 유무는 개를 기르지 않는 가구 중 피해를 입은 가구는 46(83.6%), 개가 있는 경우는 9가구(16.4%)로 나타났다.

4. 주거침입 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이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에 해당하는 주거침입 피해유발 요인을 로지스틱 회귀분석으로 살펴본다. <표 5>와 같이 1단계 인구사회학적 모델을 보면, 먼저 월평균 가구소득, 세대특성(동거인), 문단속정도, 개의유무 네 요인이 주거침입 피해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알 수 있다. χ^2 값을 보면, 모델의 카이스퀘어 값이 3.881이고 자유도(df) 값이 4인 것으로 나타났다. 첫 번째 모델은 R^2 값은 0.007(0.7%)로 변수들의 결과변수 분산 설명력이 매우 낮다.

두 번째 모델을 살펴보면, 인구사회학적 요인 외에도 “근접성”이라는 관련 변수가 모델에 포함되어 있어 근접성이 주거침입 피해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두 번째 모델에서 χ^2 값을 확인한 결과, 모델의 카이스퀘어 값이 28.196이고 자유도(df) 값이 5인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그리고 모델 설명력은 Nagelkerke R^2 값이 0.05(5.0%)로 첫 모델보다 세 배 이상 상승했음을 알 수 있다. 즉, 거주지의 무질서로 측정된 근접성 변수가 모델에 추가되었을 때 상대적으로 독립변수들의 종속변수 분산 모델 설명력이 급격히 상승한다고 하겠다. 두 번째 모델에서 종속변수인 주거침입 피해발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는 근접성 변수인 것으로 나타났다($b=0.147, p < 0.01$). 이 결과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먼저 다른 변수들을 모두 통제했을 때 근접성변수(거주지의 무질서정도)의 단위가 하나 증가할 때 주거침입 피해가능성은 약 1.2배정도 유의미하게 증가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응답 가구주변이 무질서할수록 주거침입 피해가능성은 증가한다고 볼 수 있다.

세 번째 모델을 보면, χ^2 값이 28.218이고 자유도(df) 값이 6인 것으로 나타났다($p < 0.05$). 모델 설명력 값은 R^2 값이 0.05(5.0%)로 두 번째 모델과 비교하였을 때 차이가 없는 것으로 노출 변수가 종속변수를 더 잘 설명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의확률도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근접성이외에 집을 비운 시간의 정도로 측정된 노출변수는 모델설명력과 주거침입피해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주거침입 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로지스틱 회귀분석)

변수 유형		Model1		Model2		Model3		Model4	
		b	Exp(B)	b	Exp(B)	b	Exp(B)	b	Exp(B)
인구 사회	가구소득	-.072	.931	-.082	.921	-.085	.918	.006	1.006
	세대특성	-.143	.867	-.048	.953	-.036	.965	.016	1.016
	문단속	.224	1.251	.165	1.179	.165	1.179	.209	1.233
	개의 유무	-.226	1.253	.241	1.272	.243	1.275	.127	1.136
근접성	무질서정도			.147**	1.158	1.147**	1.158	.133**	1.142
노출	집비운정도					.014	1.014	.007	1.007
보호 능력	사회적보호 (친한이웃)							-.011	.989
	물리적보호 (보호장치)							-.319**	.727
-2 Log 우도		594.986		570.672		570.649		563.146	
χ^2		3.881		28.196**		28.218**		35.721**	
Nagelkerke R ²		0.7%		5.0%		5.0%		6.3%	

※ Note *p<0.05, **p<0.01.

마지막으로 네 번째 모델을 보면, χ^2 값이 35.721이고 자유도(df) 값이 8인 것으로 나타났다(p<0.01). 모델 설명력 값은 두 번째 모델보다 1.3%가 높아져 R² 값이 0.063(6.3%)로 네 개의 모델 중 가장 높은 값을 나타냈다. 즉, 두 번째 모델에 “보호 능력”과 관련된 사회적 보호능력과 물리적 보호능력 변수를 추가하고, 노출요인을 추가하였을 때 결과변수를 설명할 수 있는 힘이 증가했다고 하겠다. 네 번째 모델에서는 종속변수와 유의미한 관계를 갖는 요인은 (1) 근접성(b=0.133)요인과, (2) 물리적 보호능력(b=-0.319)인 것으로 나타났다(p<0.01). 개개의 변수들을 살펴보면, 유의 수준 0.01에서 거주지의 무질서정도가 증가하면(b=0.133) 주거침입 피해가능성은 약 1.15배 증가한다고 볼 수 있고, 물리적 보호능력변수의 단위가 하나 증가할 때 유의 수준 0.01에서 주거침입 피해 가능성은 약 0.7배 정도 감소한다고 하겠다(b=-0.319).

V. 결론 및 정책적 제언

이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일상활동/생활양식이론을 바탕으로 주거침입 피해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1) 근접성과 (2) 노출, (3) 보호능력이라는 세 차원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2009년 전국 4, 71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전국범죄피해자조사 자료를 살펴본 결과, 강·절도 등 목적을 불문하고 2008년에 가구를 대상으로 한 범죄피해경험이 있는 가구는 213가구로 전체가구의 4.7%를 차지하고, 총 피해건수(360건)를 기준으로 보면 가구범죄피해율은 7.7%로 추정된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가구대상 범죄 중 직접적으로 주거침입 피해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55 가구(1.2%)를 대상으로 한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해 주거침입 피해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검토한 결과, 첫 번째 모델(인구사회학적, 생활양식 모델)에서 결과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미한 요인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모델에서는 잠재적 피해자의 표적적합성과 관련하여 ‘근접성(proximity to crime)’이라는 변수를 모델에 포함시켰다. 여기서 말하는 근접성이란 범죄의 잠재적 표적 또는 대상이 사는 곳과 상대적으로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과의 물리적 거리이다. 즉 범죄가 발생했던 지역 혹은 범죄가 일어나기 쉬운 장소로부터의 물리적인 거리를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는 이차 데이터의 한계 상 거주지의 무질서정도로서 측정했다. 분석결과 근접성 요인이 유의미한 주거침입 피해유발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근접성이 높을수록 가해자와 피해자가 접촉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증가한다고 볼 수 있다. 분석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두 번째 모델 설명력이 5.0%이며, 무질서 정도가 주거침입 피해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주요 독립변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구주변의 무질서정도가 1단위 증가할수록 주거침입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약 1.2배 정도 증가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주거침입 피해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거주지 주변의 경미한 기초질서 단속과 함께 불량청소년들의 비행행동 및 환경정화 등 범죄가 일어나기 쉬운 환경을 관리하여, 비행행동을 사전에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세 번째 모델에서는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근접성 외에 ‘노출’ 변수가 모델에 포함되었다. 노출변수는 평균적으로 주거가 비어있는 시간으로서 측정되었는데, 예상과는 달리 모델 설명력을 상승시키지도 않았으며, 피해경험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

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그 이유를 명확히 알 수는 없지만, 노출변수를 측정할 때 응답자의 하루에 외출하거나 출근하여 집이 비워져 있는 시간을 묻는 것 이외에도, 여행이나 휴가 등 얼마나 자주 가는지, 매일 일정한 시간동안 집을 비우는지 등을 포함하여 측정한다면 좀 더 신뢰할만한 연구결과가 나올 것이라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모델에는 ‘보호능력’ 관련 변수들이 모델에 포함되었다. 보호능력이란 범죄피해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이나 물품에 대한 범죄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보호나 방어의 능력으로 여기에서도 일상활동/생활양식이론에 입각하여 (1) 사회적 보호능력, (2) 물리적 보호능력 변수로 나누었다. 이는 가구의 보호능력을 그 가구 구성원의 대인적 또는 사회적인 면과 물리적인 측면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판단하여, 사회적 보호능력은 이웃주민과의 친분 또는 협조의 정도로, 물리적 차원에서의 보호능력은 표적의 견고화와 같이 방범시설이나 장치를 확보한다고 본 것이다. 즉 주변 이웃과의 인적 네트워크가 긴밀히 형성되어 있을 때 주거침입 피해 가능성이 감소된다고 가정하였고, 주거지의 보안이나 경비장치 등 물리적인 보호능력이 높아지면 주거침입 피해 가능성도 줄어들 것이라고 가정한 것이다. 분석 결과, 마지막 모델의 경우 앞의 두 개의 모델보다 모델 설명력이 1.3% 더 상승한 6.3%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보호능력 관련 변수가 추가되었을 때 미미하게나마 주거침입 피해가능성을 설명해 주는 최종 모델의 힘이 증가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 결과변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근접성 변수와 물리적 보호능력 변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물리적 보호능력은 응답자의 주거에 비디오폰이나 현관문을 통해 밖을 내다볼 수 있는지, 집 주위에 CCTV등 감시카메라가 있는지, 현관문에 들어올 때 출입카드를 사용하는지, 경비가 있는지, 도난경비 시스템이 있는지로 측정된 것으로, 종속변수와 음의 관계(-)를 가져, 다른 변수들을 통제했을 때 물리적 보호능력 정도가 높을수록 주거침입 피해 가능성은 감소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상 본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가구를 대상으로 한 주거침입 피해유발 요인에 대해 검증한 결과, 근접성(거주지의 무질서)과 보호능력(물리적 보호능력) 차원에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먼저 예방적 차원에서 거주지 주변의 환경개선을 통해 비행 및 범죄가 발생하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쉽게 잠재적 범죄자의 표적이 되지 않도록 민간경비원의 배치 및 감시카메라 등 물리적 보안장치를 견고화시키는 것도 중요하다. 또한 정책적 차원에서 피해 취약성이 높은 지

역을 중심으로 순찰과 같은 방법활동 강화하고, 재개발 지역 안전방호벽 설치 등 출입구 봉쇄 및 출입금지 표시, 공원 내 음주소란·불안감 조성·오물투기 등 공원 실정에 맞추어 단속 항목 자체 선정, 집중 관리하고 상습위반자 엄정 단속하는 등 범죄예방을 위한 예방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 유의미한 결과로 제시되지 않았지만 주거침입범죄는 치밀하게 계획해 범행을 저지르기보다 문 잠금 등 눈에 보이는 약점을 파고들기 때문에 문단속과 같은 기본적인 예방활동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먼저 변수의 측정이 갖는 한계이다. 이 연구는 2차 자료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독립변수를 근사변인으로서 측정함으로써 이론적 모형에서 주장하고 있는 주거침입 피해경험의 결정요인들이 조작적 정의를 명확하게 반영하는 측정문항들로 제대로 측정되지 못했다는 한계점을 갖는다. 완벽한 모델 구성을 위해서는 근접성 및 노출변수의 정확한 측정 외에 매력성 변수가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연구대상에 있어서의 한계도 있다. 연구대상자 중 주거침입 피해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대상자가 매우 적어 주거침입 절도에 관한 정확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다양한 분석을 실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보다 폭넓은 이해의 도모와 연구결과를 일반화시키기 위하여 더욱 풍부한 케이스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노력은 주거침입 절도범죄에 대한 특성 파악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주거침입 절도범죄의 피해를 예방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1. 국내문헌

- 공배완. (2008). 민간경비의 범죄예방 역할에 대한 시민의식 조사. *한국경호경비학회지*, 16: 1-17.
- 김대권. (2010). 침입절도 특성에 관한 조사연구: 민간경비 활용방안을 중심으로. *한국경호경비학회지*, 22: 15-35.
- 김상운·신재현. (2012).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민간경비 선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경호경비학회지*, 32: 33-63.
- 김은경·최수형·박정신. (2009). 2008년 한국의 범죄피해에 관한 조사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지연. (2008). 청소년의 일상활동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창호·주철현. (2008). 경호경비 관련 주요범죄에 대한 실태분석. *한국경호경비학회지*, 16: 65-79.
- 노성호. (2007). 일탈적 생활양식과 청소년 범죄피해: 청소년패널자료의 분석. *피해자학연구*, 15(2): 257-284.
- 박철현. (2003). 캠퍼스 범죄피해의 원인: 생활양식이론의 검증. *형사정책*, 15(1): 257-289.
- 이윤호·김대권. (2010). 상황적 기회요인에 따른 침입절도범의 범행선택 차이에 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39: 231-257.
- 이윤호. (2007). *피해자학*. 박영사.
- 이주락·강민완. (2009). 침입절도 반복피해에 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36: 197-224.
- 조윤오. (2013). 기회이론을 활용한 학교폭력 피해요인 분석: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피해자학연구*, 21(1) : 33-55.
- 주일엽·조광래. (2009).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과 시큐리티시스템간 연계방안. *한국경호경비학회지*, 19: 165-185.
- 지광준. (2005). *현대사회와 피해자*. 더선.

2. 국외문헌

- Bunch, Jackson. (2008). Gender, Lifestyles, and Violent Victimization. *American Sociological Association Annual Meeting*, 1-20.
- Cohen, Lawrence E & David Cantor. (1981). Residential Burglary in the United States: Life-style

- and Demographic Factors Associated with the Probability of Victimization.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 Delinquency*. 18(1): 113-127.
- Cohen, Lawrence & Felson, Marcus. (1979). Social Change and Crime Rate Trends: A Routine Activity approach.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4(4): 588-608.
- Hindelang, M. J., Gottfredson, M. R., & Garofalo, J. (1978). Victims of personal crime: An empirical foundation for a theory of personal victimization. Cambridge, MA: Ballinger.
- Hindelang, MJ. (1976). Criminal victimization in eight American cities: A descriptive analysis of common theft and assault. Cambridge MA: Ballinger.
- Kuo, Shih-Ya., Steven J. Cuvelier & Kuang-Ming Chang. (2009). Explaining criminal victimization in Taiwan: A lifestyle approach. *Journal of Criminal Justice*, 37: 461-471.
- Miethe, Terance D., Mark C. Stafford & Douglas Sloane. (1990). Lifestyle Changes and Risks of Criminal Victimization. *Journal of Quantitative Criminology*. 6(4): 357-376.
- Miethe, Terance. D., Stafford, Mark C & Scott, Long, J. (1987), "Social differentiation in criminal victimization: A test of routine activities/lifestyle theori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2: 184-194.
- Mustaine, E, E & Tewksbury, Richard. (1998). Predicting risks of Larceny theft Victimization: A Routine Activity analysis using refined lifestyle measures. *Criminology*. 36(4): 829-857.
- Stein, Rachel E. (2010). The Utility of Country Structure: A Cross-National Multilevel Analysis of Property and Violent Victimization.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Review*. 20(1): 35-55.

【Abstract】

A Factor having Influence on Housebreaking Victimization

Lee, Yoo-Na
Jeong, Dae-Gwan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factors influencing on housebreaking victimization in South Korea. It is important that a resident, police officer, and policy makers use Routine activities/lifestyle theory in order to explore whether proximity and exposure to offenders or presence of guardianships affect the resident's risk of being victimized. In this context, the current study utilizes proximity variables: disorder of residence, exposure variables: hours of empty house and guardianship variables: social networks, security equipment.

The study employs secondary data(Korean Crime Victim Survey in 2008) responses from a sample of 4, 710 resident. and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used to examine whether the likelihoods of housebreaking victimization was associated with the measures of proximity and exposure and the lack of guardianship.

The result of the study showed that proximity(disorder of residence) and guardianship (security equipment)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predictors that is associated with an enhanced risk of school violence victimization while controlling for other variables. Further policy implications of the study will be discussed.

Key words : housebreaking victimization, proximity, exposure, guardianship,
routine activity theory